

해석적 실천으로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바라보기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약한 경영의 존재 탐색

신창섭¹⁾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 이하 SSE) 기업의 경영과 성과를 투자자 중심 기업(Investor-centered Firm, 이하 ICF)의 그것과 동일한 질로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 차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연구는 그것에 이론적 토대가 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에 대해 해석적 실천 공동체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통해 새롭게 다듬어 낸 ANT의 개념을 사용하여 SSE 기업이 ICF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번역을 통해 '약한 경영'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석의 개념을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살펴본 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개념을 그에 비추어 검토한다. 특히 해석의 개념이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에 대한 경험적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닌 지식의 한계를 찾는 데 의의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여 '약한 경영'의 개념을 SSE 기업 경영의 해석에 도입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주요어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사회적 성과, 약한 경영,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1)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104onlyone@daum.net

Examining Actor-Network Theory as Interpretive Practice - Exploring the Existence of Weak Management in Social Solidarity Economy Enterprises

Shin, Changsub¹⁾

Abstract

This research emerg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 of Social Solidarity Economy (SSE) enterprises can be compared to those of Investor-centered Firms (ICFs) as same quality. Before delving into this difference in depth, this study examines Actor-Network Theory (A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communities. Through this examination, using the refined concepts of ANT, the study aims to explore how ICFs translate into SSE enterprises and, furthermore,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weak management" through such transl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ontologically and epistemologically. Then, it reviews the key concepts of Actor-Network Theory in light of interpretation. Particularly, it emphasizes that interpretation is not merely about understanding but is closely linked to practice and is significant in finding the limits of knowledge rather than seeking empirical answers to the world.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ncept of "weak management" into the interpretation of SSE enterprise management, applying it to the practices of corporate management.

Key words : Actor-Network Theory, Social Performance, Weak Management, Social Solidarity Economy, Cooperative

1) Ph.D. Program in Cooperative Management at the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104onlyone@daum.net

I. 들어가며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arity Economy, 이하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투자자 중심 기업(Investor-centered Firm, 이하 ICF)¹⁾의 사회적 성과를 양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쪽의 사회적 성과가 더 많을까? 이 질문은 두 종류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동일한 질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두 종류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동일한 질로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ICF의 사회적 성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된다. 이어서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뒤따른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SSE 기업과 ICF의 성과의 차이에 답변하는 데 연구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T란 인간과 비인간으로 이루어진 이종 네트워크의 형성과, 상호작용, 해체를 그리는 권력 행사의 역학에 관한 이론이다(홍성욱, 2010; 40). 한편, 성과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우선 질적 방법론의 이론적 전제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SSE 기업 경영과 성과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 질문인 SSE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SSE 기업은 사회적 성과 창출의 원인 변수와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는 도구적 이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²⁾를 말하면서 세계와 이성의 견고함을 해체하려 했던 철학이 다시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계를 변화 혹은 개선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만약 모순이 아니라면 어째서 그러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해석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려 한다. 해석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해석이 단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석이 곧 이해와 함께 실천임을 알 수 있

1) 통상적으로는 투자자 소유 기업(Investor owned Business)이란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법인을 소유한다는 표현이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투자자는 이익을 향유할 뿐 법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기에 여기에서는 투자자 중심 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외부 세계의 진리를 나타내는 단일한 표상은 없다고 보는 시각

다. 나아가 해석이 의미하는 이해는 세계에 대한 강한 생각이 아닌 약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업 경영에 적용해본다면 약한 경영의 개념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SSE 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II. 해석의 의미 찾기

질적 연구란 무엇인가? Denzin & Lincoln(2018; 10)은 이렇게 답변한다. 질적 연구의 의미는 역사적 시기마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넓게 보자면 관찰자를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행동(activity)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행동은 일련의 해석적이고 물질적인 프랙티스로 이루어지며, 행동의 결과 세상을 가시적이게끔 만든다. 또한 이것은 행동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산출한다(Denzin & Lincoln, 2018; 10).

연구(research)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과학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이란 개념에 의하면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들이라 불리는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체계화한 이론을 정립하는 활동(이훈영, 2008)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사회과학 연구는 자연과학과 연구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연구의 소양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기존 연구자들이 수립해놓은 과학적 연구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이훈영, 2008).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전제와 방법론적 신념을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며, 가설을 세우고 추정과 검정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 실재를 근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Croswell et al., 2018; 24).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자신의 연구 방법 이외 다른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훈영(2008)은 인문학 등의 학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주의는 근대적이고, 계몽주의적 진리관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부정적 측면, 과학과 비과학,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Deleuze)는 이성의 진리 인식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이성을 절대화한 근대가 인간 사회에 가져온 부작용을 분열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분열증이란 기성 사회의

가치에 대치되는 자신의 본성을 억압함으로써 억압된 본성이 이중 인격처럼 발현되어 자기 모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제국주의, 부의 불평등을 정당화한 고전파 경제학이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전자는 인간 평등의 관념이 인간 불평등을 정당화한 것이고, 후자는 부의 증가 욕구가 빈곤의 증가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비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과학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본다. Wiener(2023; 76)는 사회 현상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통계를 취한다 해도 그 결실은 형식적 걸치레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사회과학은 수학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데 적절치 않은 분야라는 것이다. 거시 세계에서는 분자의 요동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여 기체 통계역학이 성립하지만, 분자 크기 정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그런 요동에 의해 통계역학이 무력해지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사회과학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Wiener, 2013; 76).

근대와 계몽주의의 진리관은 17세기 뉴턴 역학의 수준에서 정립된 진리관이다. 관찰자는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의 위치에서 현상을 중립적으로 관찰한다. 그러나 20세기 양자역학 등장 이후 그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의 위치는 사라졌다. 나아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 자체가 블랙홀 표면 위의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제기된다. 양자역학 분야에서만 관찰 결과가 관측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 역시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식한 순간 관측 결과는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누군가 인식한 순간 그 미래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양적 연구방법론의 연구 설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인은 외생변수로 개념화되어 있다.

칸트(Kant)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험적 의식의 구조를 탐색했다. 렌즈의 구조를 알아야 맺히는 상의 해석을 통해 실재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Nietzsche)는 인간 각자가 자신의 도덕을 스스로 세우는 것을 정당화했다. 참된 실재의 발견을 인식의 목적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Heidegger)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선험적 범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존재에 대한 개념 이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소쉬르(Saussure)로부터 촉발된 언어학적 전환은 말과 사물의 일대일 대응 관념을 박살 내버렸다.

20세기 들어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이른바 ‘재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를 가져왔다. 재현의 위기란 외부 세계의 진리를 나타내는 단일한 표상은 없다는 인식을 의

미한다(김경만, 2015; 184). 이러한 철학 사조와 인식론의 변화는 사회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하든 아니든 항상 특정한 신념과 철학적 전제들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기 때문이다(Croswell et al. 2018; 15).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Denzin & Lincoln(2018; 10)이 말한 바 있는 세계와 맥락 속에 위치한 관찰자가 실증주의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보다 더 자연스러운 배치(setting)이며, 객관적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것이 아닌, 해석을 통해 나름의 진리를 가시적이게끔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풍부한 설명이 된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세계와 실재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방식과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취사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 설명과 이론들은 세상을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가시화하기 때문이고, 이미 연구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Mason(2010; 21)은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며, 따라서 넓은 의미로 해석주의 철학적 입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Denzin & Lincoln(2018; 2)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이것을 해석적 실천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ies of practice)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무엇인가.

1. 해석과 실천

비합리주의란 이성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성 중심주의에 반하는 모든 사조를 이르는 말이다(백승영, 2005; 187). 근대 시기로 한정한다면 유럽에서 계몽주의에 이어 등장한 낭만주의 사조가 이에 해당한다.

철학으로서의 해석학도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이규호, 1999; 22). 고대로부터 내려온 성서 해석학, 법률 해석학 등 특수 해석학을 넘어 인간 삶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학은 쉴라이어마허(Daniel Schleiermacher), 딜타이(W. Dilthey) 등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다(이규호, 1999; 22).

딜타이는 삶의 철학을 표방했는데, 그가 삶을 포착하는 세 가지 범주로 든 것은 체험, 표현, 이해였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된 것인데, 인간은 세계와 자신의 삶을 체험하며, 체험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객관화·보편화된 방식으로 표현하게끔 하고,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해에 도달한다(이규호, 1999; 33). 여기서 이해란 감각 지각, 오성의 인식, 이성의 판단을 포괄하면서 그 이상의 초월적 자각까지 아우르는 개념

이다(이규호, 1999; 33). 딜타이는 “삶이 삶을 이해한다” 고 말한다. 이는 삶은 해석의 대상이자 주체이며, 그렇게 이해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제대로 이해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이규호, 1999; 32). 여기에서 근대와 계몽이 지니고 있는 삶과 삶, 인식과 실천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딜타이와 동시대를 살았던 니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니체는 근대의 철학을 이성 중심주의 -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했다. 이성 중심주의는 우리의 감각이나 현실 넘어 어딘가에 이데아 혹은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데아나 실체를 참된 세계로 간주한다(백승영, 2005; 187).

형이상학이 이데아, 참된 것의 발견을 인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니체는 ‘참된 것’의 발견을 폐기하고, 가치 평가로 대체하였다(Deleuze, 2007; 29). 이 가치 평가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해석은 어떤 현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의미는 여러 힘들의 관계 안에 존재하며, 내가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짓는 능동적 행위이다.

모더니티에 기반한 학문은 추상적·사변적인 추론이거나 계량화되고 수학화할 수 있는 사물 간의 형식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패러다임의 존재론적 전제는 하나의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인식론적 전제는 인간은 감각을 통해 실재를 인식하고, 이성을 통해 추론하여 실재와 근사한 상을 인간 두뇌에 떠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식과 실천은 별개로 존재한다.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20세기 학문은 관찰자 자신을 포함한 한 차원 높은 수준 - 일종의 메타인지 차원에서 관찰과 연구 자체를 조망한다. 즉, 연구자 자신 및 관찰과 연구가 어떤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놓여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재의 다수성을 받아들이기에 이 세계를 감각과 이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 세계의 의미를 체험하고 표현하거나 해석을 통해 가치를 결정짓는다. 여기에서 해석과 실천은 동시적이거나 실천을 통해 해석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가다머(Gadamer)는 이해란 대상에 대한 삶의 차원이 아닌, 그렇게 이해함이 곧 그렇게 존재하는 일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박남희, 2021; 5).

또한 이러한 입장은 프랙티스와 성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영학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Astley(1985; 498)는 조직 관리를 다루는 경영학, 행정학 역시 자신의 이론적 스키마에 내장된 논리에 의해 진실을 정의하는 의미부여 활동이며 해석적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영학의 세상은 경영자가 어떤 사태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 세계이다. 이 세계에 대한 상은 경영자가 기반한 입장에 따라 다르며 그 실천은 사태에 대한 해석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란 관조적인 행위가 아닌 사태 속에서 경영, 노동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실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해석의 존재론적 측면

라이프니츠(Leibniz)는 세상은 모나드(monad)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과학 발전 수준에서 보았을 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그 존재가 부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이 가지는 의의가 모두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모나드 이론은 실체, 인식과 관련해서 이후 학자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니체, 베르그송(Bergson), 하이데거, 푸코(Foucault), 들뢰즈(Deleuze) 등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와 인식, 주체와 사회를 분석했던 개념과 범주, 논리들은 우리 시대에도 관찰과 연구를 규정하는 사회적 실재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을 예시로 든 이유는 이 논리가 언어로 개념화되기 이전의 앎을 이해하는 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효영(2019a: 77-87)은 들뢰즈의 시각을 통하여 모나드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축약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실재로 정의했다. 정신적인 것이지만 응집의 강도가 강해지면 물질화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의식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기원을 갖는 것으로 보는 일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모나드 수준에서도 지각(perception)과 욕망(desir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이라고 칭한다. 아직 자의식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후 의식을 가진 인간의 신체가 출현하면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은 의식에 포착된다. 이때 신체는 모든 모나드의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을 통합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미세 지각, 미세 욕망 중 가장 강도가 강한 것만을 의식한다.’ (김효영, 2019a: 77-87)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을 갖는 모나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하나의 유기체가 반드시

하나의 통일된 지각과 욕망을 갖지 않는 세상이다. 이것은 의식에 포착되지 않은 지각과 욕망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때문에 김효영(2019a; 76)은 라이프니츠가 프로이트(Freud)에 앞서 무의식 개념을 선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들뢰즈는 라이프니츠를 통해 분열자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실마리로 삼았다. 분열자란 하나의 통일된 의식과 욕망을 가진 주체가 아닌 미분적 의식과 욕망을 지닌 분열적 주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김효영, 2019b; 71).

이러한 미세 지각, 미세 욕망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 자명하게 받아들여졌던 ‘생각하는 나’라는 의식의 통일성과 확고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식이라는 확실함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의식, 다른 욕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던 생각하는 의식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이전 철학사에 전승되어 왔던 존재라는 것이 사실 존재 자체가 아닌 존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 존재자는 신이거나, 자연, 이성, 인간 주체 등이었다. 하이데거는 묻는다. 우리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의 존재, 거기에서 의식을 제거한다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하이데거는 존재자에 대한 일종의 현상학적 판단증지를 통해 존재 자체의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직관은 우리도 모르게 가졌을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태 자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후설(Husserl)이 제시했던 방법이다.

후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자연과학으로서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단지 색색의 잉크가 칠해져 있는 특정 규격과 중량을 가진 물체로 체험하지 않는다. 후설은 당시 브렌타노(Brentano)가 제시한 지향성(intentionality) 개념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였다.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 작용에 따라 이미지, 재질, 디자인, 낡은 정도 등 사진의 물성은 다양한 표상, 관념, 의미를 산출한다.

외부의 실재는 관념과 의미를 지닌 정신적 현상으로 나의 의식에 나타난다. 외부의 실재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나의 의식에 현상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후설은 주관이 대상을 향하면서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와 실재와의 실재적 관계가 아닌 그것과의 지향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다(Zahavi, 2017; 29).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의 열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태양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자리를 옮기고서도 기억 속에서 태양의 열을 떠올릴 수 있다(Zahavi, 2017; 30). 또한 그렇게 대상을 지각할 때

시각과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종합하는 해석 작용을 거치며, 다양한 지향의 형식 속에서 그 대상을 구성한다(Zahavi, 2017; 53). 후설은 이 과정에서 심리적 체험을 넘어서는 인간 의식의 특수한 작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작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Zahavi, 2017; 21). 이를 위한 방법이 현상학적 환원이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의식 작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제성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이영호, 1995; 177). 현상학적 환원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판단중지(Epoché)이다. 판단중지란 자연적 태도에서 인정된 대상에 대한 일체의 전제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괄호로 묶어, 작용 밖에 설정하여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이영호, 1995; 177). 둘째는 형상적 환원(eidetische Reduktion)이다. 이는 실제 대상의 본질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직관하는 본질직관을 의미한다(이영호, 1995; 177). 직관이란 대상을 고유한 모습으로 가져다주는 작용인데, 칸트는 감각에 의해 직관이 가능하고, 오성은 감각에 의한 표상을 바탕으로 추론한다고 보았다. 반면 후설은 감각적 직관뿐만 아니라 범주적 직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김희봉, 2012; 30). 셋째는 선험적 환원(transzendente reduktion)이다. 이는 본질 직관으로 포착한 대상의 본질을 의식의 내재적 본질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원된 의식이 잔여로 남는 순수 의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이영호, 1995; 177).

그런데 이러한 현상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하이데거가 존재물음(seinfrage)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를 지향하는 의식 작용의 구조가 아니다. 하이데거는 자기의식의 발견이라는 근대 철학의 기반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하이데거는 자기의식의 탐구를 통해 개시성(Da)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개시성을 통해 의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Herrmann, 1997; 57). 인간은 생각한다는 자의식을 깨닫는 순간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의식을 의식하는 순간 매번 반복되고 있었다.

때문에 하이데거는 존재를 의식하는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직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통해 존재 자체의 이해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현상학을 이용하였다. 의식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구성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이데거의 현상학이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현상되기 전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모나드처럼.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Da-sein)라고 부르며, 이미 주어져 열려 있는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해는 의식화, 개념화, 언어에 의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규호, 1999; 37). 이제 현상학은 해석으로 연결되고, 해석의 과

제는 이러한 전이해(Vorontologisch)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존재 이해를 철저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된다(이규호, 1999; 37). 하이데거에게 있어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자신의 존재를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자이면서, 그 물음과 이해를 통해 존재 일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Herrmann, 1997; 53).

그러나 존재물음이란 하나의 정답을 얻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물음에 대한 답변은 사라져버릴 어떤 경험적 상태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답변이 제출되어도 물음은 존재한다. 오히려 물음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답변을 유도하고, 방향을 잡으며, 새로운 물음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들뢰즈는 물음을 사건이라 부른다(Deleuze, 2004; 429).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지식의 한계, 앞의 지평에 맞닥뜨린다. 그것은 앞의 재현을 거부한다. 물음 속에는 사유 불가능하지만 사유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Deleuze, 2004; 423).

들뢰즈는 이것을 물음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데, 물음을 통해 반복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통 감각(common sense)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통 감각이란 외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지니는 공통의 거울이다(최영송, 2013; 12). 그러나 들뢰즈는 공통 감각은 유사성의 반복일 뿐이며 바깥을 배제하는 폐쇄성을 가진다고 본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닮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과 작업을 함께 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최영송, 2013; 21). 타르드(Tarde)는 우리는 닮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근원적이라고 말했다(Tarde, 2012; 114). 이러한 시각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모나드는 합의를 통해 의식에 이르지 않았다. 합의, 즉 공통의 기반 없이도 의식은 떠오르는데 미세 지각의 강도가 특이점에 이를 때 의식의 표면에 떠오른다. 이러한 특이점에 이르는 강도적 차이 - 우리는 물음 앞에 직면했을 때 의식 아래 존재하는 미세 지각의 강도를 끌어올리도록 강제된다.

3. 해석의 인식론적 측면

칸트, 후설과 같은 주관적 관념론에 기반한 학자들은 각자 인식의 주관성에 갇힌 인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객관적 진리에 다다르는지 해명하는 것이 과제였다.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공통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의식의 주관성, 이성의 인식 능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거부하는 학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들뢰즈는 공통 감각에 기반한 소통은 합의에 기반한 배제를 낳는 역설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서로 다른 개체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소통 혹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꼭 공통 감각에 기댈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서로 엇나가고 이해되지 않고, 그로 인해 사유를 강제하는 역설 감각(para sense)에 의존한다고 보았다(최영송, 2013; 15). 나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역설 감각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 감각을 비틀고, 전복하고, 오해하는 관념이다(최영송, 2013; 15).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맥락을 들추고, 새로운 관점을 삽입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들뢰즈에게 타인이란 꼭 인격적 존재일 필요는 없었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자아는 접혀진 타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통이란 타인과의 낯선 반복인데, 타인이란 꼭 인격적 주체를 말한다가 보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가능 세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송, 2013; 25). 그러므로 내 앞의 그 세계는 계속 기호와 정보를 생산하고, 나는 그것을 해석할 뿐이다. 해석은 오해를 생산하지만 그것은 해석의 긍정적 기능이다.

Vattimo는 존재를 사고하는 것은 존재의 공통 속성(common currency Being)에 의해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다(Harris, 1995). 존재의 공통 속성이란 존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모든 존재자는 변화와 소멸을 겪는다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존재는 변화와 소멸, 기타 존재자의 다른 속성들의 총합으로 온전히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Hermann, 1997; 46).

Vattimo(1980)는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이 정답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 유일한 절대 진리의 존재를 회의하는 것, 그래서 허무주의(nihilism)로 기울고 체념하는 것이 단지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다원적, 개방적,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적극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Vattimo는 그동안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이란 근본, 안정,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강한 생각 위에 서 있었고, 이런 강한 생각에서 보면 지식이란 영원함과 불가피성을 가정한다고 말한다(장승권, 2000: 2).

그러나 이제 생성과 개방성이라는 약한 사고의 강한 힘을 발견할 때이다. 약한 사고는 어떤 기반이나 입장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유보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철회시킨다(Harris, 1995). Vattimo(1980)는 현존재, 즉 인간은 해석적 존재라고 말한다. 존재는 불변의 고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드러내고 변화하면서 스스로 존재를 전송시킨다. 전송이란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존재는 고정된 이데아가 아닌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사건(event)으로 경험되는 존재는 인간에게 언어적이거나 가시적으로 다가온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흔적을 기억하고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존재는 의식에 표상된다. 그

러나 동시에 메시지로 상징되는 강한 정보는 그 시간의 과정에서 약화된다.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야 하고, 게다가 언어 체계로의 진입 과정에서 마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Vatitmo, 1980).

언어란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기 이전에 일종의 정보 처리를 위한 신호이다. 사건은 언어로 표현된 이후에도 정보의 잡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해석들이 추가된다. 이 신호는 언어 표적인 기호 이외 전파, 책, 논문, 보고서 등 가시적 형태의 신호를 통해 다른 수신자들에게 전송된다. Bateson(2006)은 정보는 차이를 만드는 차이라고 말했는데, 신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질수록 메시지로 상징되는 강한 정보는 약화되고 우리는 형이상학으로부터 회복된다.

경영이라는 실천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으로 인해 유일하고 객관적인 세계, 실증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도구적 이성인 작동하는 형이상학적 지식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이 목적에 수미일관되게 연결되는 성과 지표가 존재하며, 그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경영은 강한 의미의 경영일 것이다. 그렇다면 약한 의미의 경영은 어떤 모습일까? 약한 경영으로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이 약한 경영의 강한 힘일까?

4. 사물의 존재론

들뢰즈가 욕망을 기계로 표현했을 때 그는 욕망을 인격적 주체의 소유물로 보는 것을 중단한 것이다. 욕망은 이성 이전에, 인간 이전에 존재하며, 동물적으로 혹은 접속에 의하여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기계적이라 함은 접속하고, 정보를 수신하고, 모듈화된 동작을 하고, 피드백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작동 회로이면서, 커뮤니케이션 회로이기도 하고, 사건의 회로이기도 하다. 이 회로에서 인간은 하나의 전구가 아닌 여러 개의 전구로 이루어진 부분 회로이다. 흐름에 따라 불이 켜지는 부분과 밝기가 다르며, 어느 부분 회로와 접속하는가에 따라 다른 작동을 하며, 다른 역량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적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집단,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회를 형성하는 특정 단위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형식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사실을 다룬다기보다 사회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의 형성, 변화, 해체를 다룬다(최영송, 2013; 28). 그리고 이 특정 단위는 반드시 하나의 인격 주체로서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의 주장이다.

Wolfe(2009; 7-15)는 존재론에서 인간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다. 우선 메시 컨퍼런스(Macy conference)라는 1946-1953년 사이 10차례 열린 사이버네틱스 관련 회의이다. 여기에는 Bateson, McCulloch, Wiener, von Neumann 등이 참여했는데, 의미, 정보, 인지(cognition)에서 인간은 특권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사건은 푸코가 <사물의 질서The Order of Things>의 마지막 문단에서 '인간(man)은 근대 이후 지식의 효과이며 최근의 발명품(invention)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용어가 등장했고, 인간성이란 동물에서의 기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물질성(materiality)과의 연결, 체현성(embodiment)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Wolfe, 2009; 7-15).

이는 어쩌면 '도구적 인간(Homo Faber)'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인간은 도구를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동물인 것이고, 도구 즉, 사물은 인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인간의 신체보다 돌도끼, 망치, 내연기관, 스마트폰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더 인간적인 사물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트휴먼은 사물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발견했다기 보다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Vattimo식으로 표현하자면 '생각하는 의식'이 강한 의미의 인간에 해당하고, 약한 의미의 인간이란 감정에 지배당하고, 자신의 신체를 도구와 사물에 연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변화하는, 그래서 자연과의 경계선, 동물이나 사물과의 경계선이 유동적인 그런 인간이다. 나아가 인간을 분해하여 욕망 기계, 의사결정 기계, 커뮤니케이션 기계로 보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실의 물질적 기계 혹은 사회 기계들과의 접촉을 보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의식을 인간의 진면목으로 파악하고,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현존재라는 호칭을 부여했다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푸코는 인간을 지식과 권력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존재로 바라보았고, 포스트휴먼은 사물이 없다면 인간도 없음을 자각한 것이다. 이들은 인간과 사물의 경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약한 의미의 인간이라는 지반 위에 서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이 없다면 인간도 없겠지만, 인간이 없으면 사물도 없을까? 현대의 과학 지식에 의하면 그럴 일은 없다. 메이아수(Meillassouxs, 2010)는 이를 선조성(ancestral)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선조적인 것이란 인간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실재 전부이다. 칸트는 물자체를 우리의 감각 밖에 존재하여 실체를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선조적인 것을 인정한다면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물음이다. 다만 메이아수는 존재하는 것들 중 필연적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III.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경영, 성과를 해석하기

경영은 경영자의 활동이다. 그러나 위 논의를 따라왔다면 그렇게 단정하기 힘들다. 자본의 자기운동이거나, 상품을 둘러싼 인프라의 집적이거나,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접촉과 연결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측면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SSE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지구 환경과의 연결이 중심적 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성은 더욱 커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제하는 것이고, 지구 환경 및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중심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나름 다른 방식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제하는 것이 일종의 기업에 대한 강한 생각이라면, 기업에 대해 다른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은 기업에 대한 약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약한 생각의 의의는 강한 생각에 대한 회의를 통해 다원적, 개방적,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에서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지 않는 협동조합과 SSE 기업은 투자자 중심 기업(Investor-centered Firm, 이하 ICF)의 존재 방식에 물음을 제기하는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 협동조합과 SSE 기업은 ICF에 동형화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ICF와 미분적 차이를 창출할 때 존재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찾고자 한다면 동일성이 지배적인 평균적 대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미세한 배치와 상호작용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생산자가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어떤 의례적 행동을 하는지, 퇴임한 조합원 활동가가 어떤 네트워크와 새롭게 접촉하는지, 어떤 요인이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제품의 원료를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원료로 바꾸게 만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업에서 성과는 이해관계자나 지역사회의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고, ICF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는 데 연구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ANT의 어떤 개념들이 이 분석에 유용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해석적 실천공동체의 맥락에서 ANT의 개념들을 검토해 보겠다.

1.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해석을 위한 준비 : 네트워크 - 주름, 접힘과 펼침

Latour(2010; 97-106)는 ANT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술적 의미의 네트워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이다. 여기에는 빈도, 분배, 동질성, 근접성 등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물론 ANT의 행위자로 인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속성을 띠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인간을 포함한 이중 네트워크 전체로서는 그런 속성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셋째, ANT의 네트워크는 메타포이다. 네트워크가 아닌 필라멘트라는 용어로 대체해도 ANT 이론 전개에는 무리가 없다. ANT가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결된 네트워크의 수만큼 많은 차원을 갖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ANT는 사회를 구조, 체계라는 관념을 사용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본다. 그 모델에서는 장비, 연구실, 인터넷, 통신시설 같은 인공물들을 제대로 기입할 수 없다.

넷째, 네트워크 관념이 갖는 장점이 있다. 우선 멀고 가까움이라는 거리 관념을 제거한다. 지도 위에 세 점이 있을 때 멀고 가까운 거리는 지도상 위치에서 정해지겠지만, 네트워크는 연결 유무에서 정해진다. 지도상 거리가 멀지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가까운 것이고, 지도상 거리가 바로 옆이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또한 크고 작음이라는 미시/거시 구분을 제거한다. 어떤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비교할 수 없다. 연결된 행위자들의 수는 적지만 주로 장거리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좁은 지역에 많은 행위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선형적인 위계의 구분이 없다. 구조, 체계에 존재하는 상하의 구분이 네트워크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다. 단지 네트워크 상에 있고, 없고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Latour, 2010; 97-106).

Latour의 설명에 의하면 ANT에서 네트워크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 은유가 갖는 장점

도 존재하지만 약점도 존재할 것이다. 그 약점 중 하나는 기하학적인 것 뿐 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사건의 회로이기도 한데, 기입, 번역 등에 의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기존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변화를 묘사하는 데 약점이 있다.

한편 배종훈(2017; 59)은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할 때 네트워크를 자원과 정보의 통로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하먼(Harman, 2020; 195-199)은 ANT의 네트워크 관념의 약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선 모든 관계가 호혜적이거나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 대립하거나 일방적인 관계도 존재하는데, 네트워크 관념은 이런 점들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객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외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객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 모든 네트워크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결정적인 공생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어떤 사건들은 객체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데 이러한 점을 네트워크 관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ANT 해석의 초점은 네트워크의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닌 접속과 단락의 효과 혹은 상호작용을 찾아내는 것과 그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동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데 들뢰즈의 주름 접힘과 펼침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들뢰즈는 주름 개념을 라이프니츠에게서 가지고 왔다. 두 명 모두 주름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일종의 은유로 사용한다(이성근, 2023; 16).

‘우주 전체는 하나의 연속적인 물체이다. 어디에서도 분할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곳은 밀랍처럼 굳어 있고, 어떤 곳은 옷처럼 다양하게 주름 접혀 있다. 물질은 주름에 따라 쌓여 있다. 서로 다르게 주름 접혀 있고, 더하고 덜하게 전개되어 기관들을 구성한다.’(이성근, 2023; 35-68)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와 스마트폰의 SNS 앱의 관계는 주름 접혀 있다. 내가 앱을 터치했을 때 접힌 주름은 펼쳐지는데, 그 앱 안에는 나와 링크된 사람들이 주름 접혀 있고, 나는 그것을 다시 펼친다. 다른 방식의 주름도 접혀 있는데, 예를 들면 ‘앱등이’¹⁾ 주

1) Apple과 폼등이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Apple에 대한 추종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름으로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주름 접혀 있고, 다른 브랜드의 연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배제의 질서도 주름 접혀 있다. 또한 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인해 걷기 운동을 하게 되거나 셀카 촬영이 늘어나는 등 스마트폰도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름 접혀 들어온다.

유의할 점은 펼침은 접힘의 역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Deleuze, 2004; 71). 마치 프랙탈처럼 펼쳐져 보이는 부분을 확대해보면 그 안에 무수한 접힘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란 정보, 자원이 흐르는 통로이기도 하고, 지위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프리즘이기도 하다(정명호 외, 2019; 375). 네트워크란 은유에 주름의 은유를 덧씌우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무수한 펼침이 접혀져 있는 주름으로 보고자 함이다.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를 구별하지만 주름이란 은유에서는 노드와 링크는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 접혔던 부분이 펼쳐지면서 링크의 일부분이 노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펼쳤던 부분이 접히면서 노드의 일부분이 링크처럼 보이며, 이것은 사건의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이 주름의 네트워크는 접혀진 질서가 잠재되어 있는 장소이며, 다른 접속을 배제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기농 사과라는 하나의 상품과 연결된 네트워크, 주름 접혀 있는 질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유기농 사과는 1980년대에는 농부의 정직한 땀과, 1990년대에는 생활협동조합과, 2000년대에는 웰빙으로 대표되는 행위자들과 접속해왔고, 지금은 치유식품으로 번역하려는 행위자들도 있다. ANT는 유기농 사과에 주름 접혀 있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변화와 그때마다 다르게 주름 접히고 있는 질서와 의미를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해석을 위한 준비 : 기입과 처방, 의무통과점

ANT는 기입(inscription)과 처방(prescription)은 함께 작동한다고 본다. 기입이란 기록하기이며 구조와 배열을 물질화시키는 행위이다.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검정 장치들과 특정 질서에 맞게 기록하는 행위의 배치가 필요하다. 과학자가 무엇을 쓰는 과정은 결국 실험실 안팎의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에게 나름의 역할과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처방(prescription)이 함께 작동한다. 즉, 처방이란 기입을 통한 권력 행사를 말한다. 과학자의 논문에는 과학자가 이중적인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적절하게 네트워킹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환(displacement)이 일어난다. 치환이란 기록의 결과 이종의 행위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이다(Latour, 2010; 27).

ANT의 기입은 DeLanda(2020; 51)가 말한 병참 형식의 글쓰기와 유사하다. 병참 형식의 글쓰기란 병원에서의 약 복용 횟수, 학교나 막사에서 일상 업무의 기록, 공장에서 원료 사용량과 산출량 등을 기록하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이다. 이런 글쓰기는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관찰한 보호시설과 감옥 등에서 이루어진 글쓰기이며, 관찰, 감시 등 다른 비담론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이 글쓰기는 예전에는 연필과 장부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PDA, 인트라넷, 보안 소프트웨어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푸코는 이런 병참 형식의 글쓰기를 담론적 실천으로 보지 않았다. 담론적 실천이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산출하는 실천이라면 병참 형식의 글쓰기는 감시, 관찰 등 비담론적 실천에 결부될 뿐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Delanda, 2020; 51). 그러나 담론적 실천에 재료를 제공해줄 수는 있다고 보았다.

ANT는 굳이 담론적 실천과 비담론적 실천을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구분해본다면 ANT의 입장에서는 병참 형식의 글쓰기 역시 담론적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물이나 원재료 양 등 비인간 행위자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비인간 행위자로 치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실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회계는 병참 형식의 글쓰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ERP에 연결된 입력 기계들의 작동에 의해 매월, 분기, 반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생산한다. IFC에 있어 이 재무제표, 특히 당기순이익은 의무통과점에 해당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ANT에서 의무통과점이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반드시 거쳐 가게 함으로써 행위자들이 의존하게끔 하는 장치를 말한다(Latour, 2010; 71). IFC의 목적은 이 당기순이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IFC 안의 모든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행동은 이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IFC의 의무통과점을 당기순이익의 창출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미진한 점이 있다. 상업에서 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농업에서 봄에 씨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임을 인류는 오래전부터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IFC의 이익 추구가 이전 사회와 다른 점은 이익 추구의 자유가 최우선의 자유가 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 상공업의 이익 추구 행위는 신분, 공동체 질서, 종교 등에 종속되어 통제 받았다면, 근대 사회에서 이익 추구의 자유와 그 결과물의 배타적 소유는 유일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유한 문화 혹은 경제 활동의 풍토를 형성한다. Mumford(2006; 320)는 이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렬된 방식을 따라야 하며, 편차(devia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신념.

학자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영자들은 목적을 이루는 단 하나의 최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 길은 대체로 관료주의적 통제에 대한 집착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참는 사람들이라는 무언의 믿음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리스크가 무시되거나 보이지 않게 만든다.’ (Mumford, 2006; 320)

협동조합과 SSE 기업의 의무통과점은 당기순이익이 최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IFC와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Mumford가 말한 문화에서도 SSE 기업과 IFC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3.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해석을 위한 준비 : 상호작용 - 네트워크 효과

한편 기업과 처방은 일방의 행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을 통한 처방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일련의 상호작용을 거쳐 피드백을 통해 되돌아온다. 이것은 다시 기업 방식과 기업 행위의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인간 행위자가 총무팀이나 연구실의 회로에 접속되어 기업 행위를 할 때 그는 인격이 아닌 그 회로의 기계로 작동하겠지만, 어떤 반작용, 피드백은 그 회로의 접속에 저항을 일으키거나 단선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간 행위자는 병원, 연구실의 회로일 뿐만 아니라 사진 동호회, 직장 내 비공식 모임, 특정 소수집단 등 다수의 회로가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 접혀 있는 노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노드 간의 상호작용 역시 ANT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루는 인간 행위자 간 네트워크 효과 역시 ANT 입장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사회적 학습, 규범, 외부성 등으로 구분한다(DiMaggio & Garip, 2012).

ANT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전달 체계에는 반드시 비인간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그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다른 인간 행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SNS,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부분이 많으며, 이런 미디어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행위자를 만난

다고 할 때 우리는 야생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빌딩, 카페 등 어떤 물질화된 공간에서, 구매자, 협력업체 직원 등 어떤 조직이나 커뮤니티의 회로로서 만나는 것이고, 이런 공간과 소속은 자본력과 지역 인프라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태는 담론적인 것, 가시적인 것 혹은 명시적인 형태도 있을 것이고, 암묵적인 형태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시적인 것이란 비담론적인 것을 뜻한다. 담론적인 것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것이겠지만, 가시적인 것은 행동, 몸짓, 구조물, 시청각 자료 등으로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의미도 있겠지만, 암묵적인 것도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인간, 비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상호작용 분류

구분	가시성의 실천 - 명시 & 암묵적인 것	담론적 실천 - 명시적인 것
기입	구조와 배열을 물질화시키는 행위이면서, 매뉴얼에 따른 행동	병참 형식의 기록하기 매뉴얼에 따라 양식, 도구를 사용
처방	기입을 통한 권력 행사	기록하기를 통한 권력 행사
	권력의 원천은 매뉴얼이 지닌 권위. 동시에 행위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적용 여부, 적용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재량권 역시 매뉴얼이 허용하는 것	
강화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의 확장. ex. 현미경	탈체현된 지식, 담론장의 확대.
퇴행	물질에 의한 인간 능력의 쇠퇴. ex. 내비게이션	특정 담론의 쇠퇴
소환	퇴행되었던 물질의 재등장. ex. 지도책	쇠퇴했던 담론의 재등장
반전	물질의 행위가 한계에 다다름의 영향. ex. 엑셀 순환 오류	악성 댓글, 복불
체현성	물질이 인간 신체의 연장 또는 일부가 되는 것	AI의 언어
탈체현성	인간의 사고는 생물학적 두뇌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장치와 연동되어 신체 외부로 흘러다닌다는 의미	미디어의 담론
사회적 학습 (모방)	네트워크 상의 동료가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프랙티스의 정보, 특히 그 프랙티스와 관련된 비용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 따라서 명시지의 형태이며 더 넓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학습 효과 발생	
규범	규범은 보상과 제재를 통해 작동하며 해당 규범에 따른 프랙티스를 도입하지 않는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	경영학 교과서, 매뉴얼, 약관, 정관, 지위나 자격을 정하는 규정, 성경, 윤리 교과서
외부성	개인이 어떤 네트워크와 접촉함으로써 프랙티스를 채택하고, 프랙티스의 가치가 선행 채택자들의 수에 의존하고 있을 때 외부성 효과 발생	평판
탈영도화	설정된 의무통과점에 의해 번역되었던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단선, 탈락되는 현상	
탈코드화		단선, 탈락이 담론화되는 것

4.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해석을 위한 준비 : 소속의 다중성 & 네트워크 간 이동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하나의 조직, 네트워크, 커뮤니티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하나의 조직일 경우에도 과 - 부서 - 사업부 등 다중적으로 속해 있다. 짐멜(Simmel, 2013; 588-590)은 근대사회에서 화폐 경제의 발달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시키는 동시에 그 직접적 의존 관계는 해체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해체는 개인이 집단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때 화폐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독립을 강화시키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중세 시대가 친교, 종교, 직업 등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로 상징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합 형식이었다면, 근대는 개인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결사체에 필요한 만큼 결합하는 가분성이 허용되는 시대라고 말하였다(Simmel, 2013; 588-590).

개인은 복수의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동하기도 한다. 그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가입 혹은 새로 연결되기도 하고, 특정 네트워크에서 탈퇴 혹은 연결이 거의 끊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의 네트워크 간 이동은 암묵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Sytch & Taraynowicz(2014)는 명시지는 네트워크의 경로를 따라 전달되겠지만, 암묵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지식은 이런 경로로 이전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Sytch & Taraynowicz(2014; 250)는 행위자가 다수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거나, 나의 네트워크에 다른 행위자가 이동해옴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암묵적 지식의 전파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해석을 위한 준비 : 경영과 성과에 대한 물음

IFC는 의무통과점인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부여받고 나아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때 회계 기록은 주로 화폐와 수량을 중심으로 기재하겠지만, 회계 기록의 내외부에 대한 활용은 다분히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적자 결산이 발생했을 때 현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은 공격의 빌미로 사용할 것이고, 경영진은 투자 혹은 사회적 기여의 이유를 들어 방어할 것이다. 경영 활동의 기록, 나아가 보고를 위한 성과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경제·정치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이면서 제도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ouchard et al, 2018; 63).

이러한 내외부 이해관계의 차이, 이해관계와 얽힌 다양한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 항상 위협받는 정당성과 끊임없이 연기되는 확정성은 강한 경영 속에 접혀 있는 약한 경영의 존재를 언제나 일깨운다. 식스시그마로 상징되는 제어시스템의 무결성은 잠깐의 찰나일 뿐, 시장은 변동하고, 끊임 없는 혁신의 파고 속에 지속적인 변신을 요구받는다.

강한 경영이란 당기순이익의 최우선성과 더불어 앞에서 Mumford(2006; 320)가 말한 목표의 명확성, 통제의 신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최상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노동자들을 부품과 기계로 간주하는 무언의 믿음 등 현대의 지배적인 경영 문화를 접고 있는 경영이다.

한편, 이러한 강한 경영은 들뢰즈(2014)가 말한바 있는 욕망의 흐름을 탈영토화시키는 기계로 작동하기도 한다.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생산하며, 어떤 포스트모던한 이론보다 훨씬 더 포스트모던한 상품과 조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cha GPT, Gemini 등 AI가 그렇고, 구글의 자유로운 일하는 환경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IFC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이익으로 재코드화시키는 기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코드화는 Bateson(2006)이 말한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이중구속이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한다. 강한 경영의 IFC도 정치적으로 평등한 현대 사회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욕망의 흐름을 해방하도록 자극받는다. 그러나 가령 대중의 욕망을 자극

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IFC 기제가 허용한 방식이 아닌, 나의 연봉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나만 욕망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자유로운 행위는 IFC의 코드에 위배된다. 욕망의 해방이라는 자극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IFC의 코드를 위배할 것이고, 반대로 자극을 거부한다면 멋진 신제품 개발에 실패할 수 있다.

약한 경영은 강한 경영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다. SSE 기업은 ICF의 의무통과점인 당기순이익 최우선을 회의한다. 그러나 현대의 지배적인 경영 문화와 관련해서는 SSE 기업 역시 갈팡질팡한다. SSE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착한 기업이야.’ 그러나 동시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IFC와 다르지 않아.’ 이런 상황은 SSE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중구속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에 의하면 의무통과점은 문제제기 및 관심끌기의 기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SSE 기업이 IFC의 강한 경영을 번역하기 위해 활용하는 관심끌기 기제는 다양하다. 조합원 편익, 이해관계자 배려, 자기경영self-management, 트리플 바텀라인, 로컬, 지속가능성 등이 그러한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 중 어떤 것이 정당일까? 그러나 약한 경영은 정답을 고르는 경영이 아니다. 협동조합과 SSE 기업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IFC의 전제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존재라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해석을 통해 매일 새로운 실험적 실천을 반복하고 있다.

Unger(2012: 325)에 의하면 실험은 미결정과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ANT에서 결절이란 이중의 네트워크가 접혀 있어 마치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결절은 실험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기원에 접혀 있는 이중의 네트워크를 드러내게 된다. 협동조합과 SSE 기업의 경영 실천이 현대의 지배적인 경영 문화 프랙티스와 차이가 날 때마다 그 지배적 문화 안에 접혀 있던 약한 경영의 잠재성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SSE 기업과 IFC의 사회적 성과를 동일한 질로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2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 첫째는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IFC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는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 두 번째 질문인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해석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 보았다.

해석은 단지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천과 가치 부여의 능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경영 활동 역시 변화를 추구하는 해석적 실천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은 나와 다른 존재자를 마주했을 때 해석하며, 이때 해석은 나와 타자의 동일성의 발견이 아닌 차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상호작용이다. 이 실험적 실천들이 '뚜렷한 목적 - 수미일관되게 연결되는 성과 지표'로 상징되는 강한 경영과 대비되는 약한 경영의 내용을 이룰 것이다. 약한 경영의 맥락에서 성과란 어떤 더 나은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본다.

제3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인 SSE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IFC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ANT의 시각과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지만, SSE 기업은 IFC와 다른 의무통과점을 가지며, 이것을 활용하여 IFC의 강한 경영을 약한 경영으로 번역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직 설익은 연구이기에 이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과 지적을 기다리겠다.

참 고 문 헌

- 김정만. 2015.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파주; 문학동네.
- 김영천·정정훈. 2021. 사회과학을 위한 질적연구 핸드북,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효영. 2019a. 들뢰즈의 미시적 무의식 개념에 대하여: 라이프니츠의 미세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근대 철학, 13, 75-97.
- 김효영. 2019b. 들뢰즈의 미시적 무의식 개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봉. 2012.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상학과 현대철학, 52, 25-60.
- 박남희. 2021. 가다머의 철학, 아트앤스터티 강의록.
- 배종훈. 2017. 관계와 추론: 구조주의자의 시선. 인사조직연구, 25(3), 49-82.
- 백승영. 2005.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서울; 책세상.
- 이규호. 1999. “철학으로서의 해석학”, 해석학의 역사와 전망, 한국해석학회, 17-63.
- 이성근. 2023.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에 관한 연구 - 들뢰즈의 해석을 경유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편. 1995. 현상학으로 가는 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훈영. 2008.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청람.
- 장승권. 2000. 정보와 사이버네틱스의 탈구성 - 정보와 사이버네틱스를 다르게 읽을 수 있을까, 산업과학 연구, 10, 1-21.
- 정명호·이승윤·고성훈·김철영·박원우 외. 2019. 매니지먼트 이론 2.0: 최신 연구동향과 전망, 서울; 클라우드나인.
- 최영송. 2013. 들뢰즈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stley, W. G.. 1985. Administrative Science as Socially Constructed Trut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4), 497-513.
- Bateson, Gregory.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London; Intertext Books, 박대식 옮김, 2006, 마음의 생태학, 서울; 책세상.
- Bouchard. Marie J. Damien Roussliere and CIRIEC. 2015. The Weight of the Social Econom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이상운 & 윤길순 옮김, 2018,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와 사례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Creswell. John W., Poth. Cheryl N..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Los Angeles : SAGE.
- DeLanda. Manuel. 2010. Deleuze: History and Science, 유충현 옮김, 2020, 서울; 그린비.
- Deleuze, Gilles. 1965. Nietzsche, 박찬국 옮김. 들뢰즈의 니체, 2007. 철학과 현실사.
- Deleuze, Gilles and Felix Guttari. 1972. L'Anti-OEDIPE, 김재인 옮김, 2014, 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주)민음사.
- Denzin, Norman K. Lincoln. Yvonna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Sage.
- DiMaggio, Paul and Filiz Garip. 2012. Network Effects and Social In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8, 93-118.

- Harman, Graham. 2016. *Immaterialism : Objects and Social Theory*, 2020, 비유물론, 서울; 갈무리.
- Harris, Matthew Edward. 1995. "Gianni Vattimo", *Th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ISSN 2161-0002, <https://iep.utm.edu/>, 2023.12.13.
- Herrmann, Friedrich-Wilhelm von. 1997. *Interpretationen zu Sein und Zeit*. 신상희 옮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찾아서, 서울; 한길사
- Latour, Bruno, Michell Callon, and John Law. 2010. 홍성욱 역음. 2010, *인간.사물.동맹*, 서울; 이음.
- Mason, Jennifer. 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ition, 김두섭 옮김,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제2판*, 파주; (주)나남.
- Meillassoux, Quentin. 2006. *Apres la finitude: Essai sur le necessite de la contingence*, 정지은 옮김, 2010, *유한성 이후 : 우연성의 필연성에 관한 시론*, 서울; 도서출판b.
- Mumford, Enid, 2006, *The story of socio-technical design : reflection on its suceess, failures and potential*,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6(4), 315-394.
- Simmel, Georg. 1900. *Philosophie des Gelded*, 김덕영 옮김. 2013. *돈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 Sytch and Tararynowicz. 2014. *Exploring the Locus of Invention: The Dynamics of Network Communities and Firms' Invention Produ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1), 249-279.
- Tarde, Gabriel. 1895. *Les Lois de L'Imitation*, 이상률 옮김, 2012, *모방의 법칙*, 서울; 문예출판사.
- Unger, Roberto Mangaberia. 2006. *The Self Awakened : Pragmatism Unbound*, Havard University Press, 이재승 옮김, 2012, *주체의 각성*, 서울; 앨피.
- Vattimo, Gianni. 1980. English translation in 1993, *The adventure of difference: philosophy after Nietzsche and Heidegg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iener, Nobert. 1948. *Cybernetics :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snd the Machin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김재영 옮김, 2023, *사이버네틱스 : 동물과 기계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인다.
- Wolfe, Cary. 2009. *What is Posthumanism*,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Zahavi, Dan. 2003. *Husserl's Phenomenology*, 박지영 옮김, 2017, *후설의 현상학*, 파주;(주)도서출판 한길사.

논문접수일 : 2024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24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26일